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박지은

2015년 2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정 숙

박 지 은

이 논문을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박지은의 가정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5년 2월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자아존중감	4
1) 자아존중감의 정의	4
2) 자아존중감의 중요성	5
2. 도덕성	7
1) 도덕성의 정의 및 발달이론	7
2) 도덕지능의 개념 및 구성요소	11
3. 학교생활적응	14
1) 학교생활적응의 개념	14
2)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인	16
4. 자아존중감과 도덕성 및 학교생활적응 과의 관계	17
1) 자아존중감과 도덕성과의 관계	17
2)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17
3) 도덕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18
III. 연구방법	20
1. 연구문제	20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0
3. 측정도구	21
1) 사회인구학적 요인	21

2) 자아존중감 척도	21
3) 도덕성 척도	22
4) 학교생활적응 척도	22
IV. 연구결과	24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4
2.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도덕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일반적 경향	26
3. 초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도덕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27
1) 초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27
2) 초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	29
3) 초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32
4. 자아존중감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	36
5.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36
1) 자아존중감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36
2) 도덕성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37
6. 초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아존중감, 도덕성,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	39
7.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41
V. 결론 및 제언	43
참 고 문 헌	47
Abstract	
부 록	56

- 표 목차 -

<표 1> Kohlberg의 도덕성발달 단계	9
<표 2> 학자들의 도덕지능의 정의	12
<표 3> 자아존중감 척도	21
<표 4> 도덕지능 척도	22
<표 5> 학교생활적응 척도	23
<표 6>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25
<표 7> 자아존중감과 도덕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26
<표 8>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28
<표 9>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개인적 특성에 따른 도덕성	31
<표 10>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35
<표 11> 자아존중감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	36
<표 12> 자존감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37
<표 13> 도덕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38
<표 14> 자아존중감, 도덕성, 학교생활적응, 사회인구학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	40
<표 15>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사회인구학적요인 및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의 회귀분석 결과	42

국문초록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 지 은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지도교수 김 정 숙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위해 제주 지역 5개의 중학교 총 465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도덕성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였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도덕성과 학교생활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t -test와 일원배치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하위집단 간의 차이는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Scheffe's Multiple Range Test)으로 분석하였다.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도덕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도덕성은 양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은 하위 변인 중 학교규칙적응과 교사관계적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아버지의 연령이었고, 40대인 집단과 30대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도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성별, 경제수준, 종교유무, 아버지의 연령이었다. 성별은 공감능력, 양심, 관용, 친절, 자제력, 존중심, 공정성 등 도덕성 하위요인 모두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공감능력, 양심, 관용, 친절, 자제력, 존중심, 공정성 등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대부분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매우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더 높았다. 종교유무는 공감능력, 양심, 관용, 친절, 공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도덕성이 높았다. 아버지의 연령은 공감능력, 양심, 공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중범위검증결과에 의하면 양심과 공정성은 40대 집단이 50대 이상 집단보다 높았다.

넷째,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성별, 학년, 경제수준, 종교유무, 가족 수, 부모 유무, 아버지의 연령, 어머니의 연령이었다. 성별은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 모두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교사관계적응과 학교규칙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적응에서는 5학년과 4학년 및 6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5학년이 4학년 및 6학년보다 높았다. 학교규칙적응에서는 4학년 및 5학년과 6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4학년 및 5학년이 6학년보다 높았다. 경제수준은 하위요인 모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대부분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매우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더 높았다. 종교유무에서는 하위요인 모두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는 교우관계적응과 학교수업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교우관계적응에서 4인 집단이 3인 이하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 유무는 학교규칙적응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집단이 한부모, 조부모와 살고 있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연령은 하위요인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적응과 학교규칙적응에서 40대 집단이 50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도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자아존중감 및 도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사관계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존중감과 양심, 학

년, 가족 수였으며, 양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교우관계적응과 학교 수업적응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존중감이며 그 다음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제력이었다. 학교규칙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학년, 경제수준, 자아존중감, 양심, 존중심이었으며, 존중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도덕성은 양심, 자제력, 존중심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있어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수업에 집중하고 학교 내의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가 필요할 것이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등학교는 보편적으로 아동이 가정 이외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단체이자 환경이다. 아동은 학교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전인격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 아동의 욕구는 학교, 가정과 기타 사회적 환경에서 적절히 수용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학교생활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폭력과 학업중단, 대인관계 결여 등 학교 부적응 문제가 이전에는 중·고등학교 때 두드러졌다면 최근에는 점차 연령대가 낮아져 초등학교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발맞춰 충북청명학생교육원은 지난해부터 초·중생을 대상으로 상담 활동을 지원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올해부터 청소년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를 의무화하고 있어 학교생활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나려는 청소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학교생활 적응과 부적응으로 인한 일탈행동이나 비행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그 원인을 분석하는 여러 연구에 의하면 과거에는 부적응을 단순 일탈 및 비행의 측면으로 인식하여 가정경제수준, 학업성적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근거하였으나(박서연, 2013), 현재는 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들과 해석함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의 비인간화가 날로 가속화 되면서 떨어지는 자아존중감과 도덕성 등 이런 정의적인 특성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정의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 관계를 밝히고자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홍성훈, 2004).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내리는 평가와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Rosenberg(196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감과 인내력이 많으며, 자기표현과 대인 관계 능력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그리고 설경숙(2005), 채영이(2006) 등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에 정적인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제시한 바가 있으며, 여러 선행 연구를 보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교우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며 책임감도 강하여 학업의 충실도가 높아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성순, 2014). 이는 자아존중감이 인간의 행복하고 만족스런 삶을 의미하는 주관적 안녕의 한 요소로서 간주되어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교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면 도덕성은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타인배려와 관련이 된다. 도덕성은 아동이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는 수많은 사회적,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 올바르게 바람직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관장하며, 합리적으로 대응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성품을 도덕지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도덕지능은 공감능력, 친절, 관용, 양심, 자제력, 존중심, 공정함 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길러져야 하는 내면적 덕목을 일컫는다(정지아, 2010). 이러한 도덕적 덕목, 즉 성품은 아동들의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의 양과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적응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적응 등 관련변인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수행되어 일관된 결과를 산출하고 있으나, 연령·성별 발달 경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관적인 추세를 단언하기 어렵다. 한편, 도덕성의 경우에는 국내외의 많은 연구를 통해 연령별 발달 추세는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반면, 성차 문제는 이론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최근 측정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는 성차가 검증되지 않았고, 국내 연구에서는 일관된 추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문용린, 1994).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은 정의적 특성 중 하나로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두 변인간의 관계 또한 알아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조은파(2012)는 자신을 잘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도 알 수 있다고 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이는 타인배려와 관계있는 도덕성이 높을 것이

라는 말과 연결을 하고 있지만, 홍성훈(2004)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의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최근 많은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지고 있으나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태이고, 연구마다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의 관계가 일관적이지 못해 해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덕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권주임(2013)이 도덕성과 또래관계 및 학업성적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밝혔으나, 도덕성과 전체적인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태이고, 또한 자아존중감 및 도덕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탐색·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자아존중감 및 도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하고 초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사회복지사업과 학교상담사업에서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의 정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이 스스로 자신이 지녔다고 생각하는 특성에 대한 느낌 또는 평가를 뜻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모든 특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여러 측면에서 자신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다(송명자, 1995).

한국교육심리학회(2000)에서는 자아존중감이란 “자아개념의 평가적 측면으로 자신이 가치 있다고 평가한 부분이다. 이것은 목표를 성취하거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형성된다. 자아개념이 개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치 신념이라면,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평가를 전제한 정의적 반응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두 용어는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면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정의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여러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먼저 Rosenberg(1989)는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을 한 대상으로 볼 때 자신에 대해 갖는 개인의 인지와 감정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며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나 오만함, 자신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평가적 요소 및 감정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효과적인 대인관계의 환경을 통하여 개인이 만들어가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지니고, 개인이 받는 존경심과 수용성의 정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개인들은 자신을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개인들은 자신을 가치 없고 중요하지 않으며 좋아하지도 않을 뿐 아니

라 자신감, 신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의 정도가 결핍되어 있다고 하였다 (권양순·송정아, 2010).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와 타인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에 대한 자신의 수용과 존경의 정도이며(고려옥, 2005), 주변의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해 나가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존중해주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김지희, 2011).

한편 이은주(2005)는 “자아존중감이란 타인과의 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 욕망과 타인이 나를 높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욕망이 포함된 자신에 대한 인지적, 평가적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심리적인 양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신이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지에 대한 인지적 과정과 태도 및 정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내리는 평가와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정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2) 자아존중감의 중요성

건강한 자아존중감의 형성과 발달은 개인의 건강한 인경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은 자아존중감의 기능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Rosenberg(196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아 존중감이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신감과 인내력이 많으며, 자기표현과 대인 관계 능력이 높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활동적이고, 표현이 풍부하며, 사회에서 성공적이지만 낮은 아동은 집단에 잘 참가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능력에도 회의적이라고 함으로서, 아동의 사회성 및 동기 지향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한다. (한중혜, 1996).

Satir(1988)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 대해 수용력, 자신과 타인에 대한 능력 인식, 안정감, 소속감, 자신감, 성취감, 책임감이 높고 목적을 위해 추위의 자료들을 잘 이용한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잘 지탱하며 어려움을 잘 소화하고,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 능력

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역할들을 잘 해낸다. 그들은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통합하기에 균형자로 불리며 대화에서도 언어와 행동이 일치된 대화를 하며 타인도 그러하도록 잘 돕는 특징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면서도 자신의 대화를 스스로 조절하여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소유한다고 진술하고 있다(황동한, 2011).

권양순과 송정아(2010)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적응을 잘하며, 우울증, 불면증과 같은 육체적, 심리적 건강이 낮다고 보고 했다.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행동양식, 목표의 계획 및 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정서적 건강, 성취 및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심리적인 건전한 기초이며, 인간의 감정 욕구, 가치 그리고 목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 개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 가는 자신의 생활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역할들을 잘 해내고, 대인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 도덕성

1) 도덕성의 정의 및 발달이론

(1) 도덕성의 정의

도덕교육은 인간의 도덕성 형성과 성장과정에 관한 것으로 도덕성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도덕성의 개념 정립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도덕교육연구회, 1993), 시대에 따라 그리고 철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교육 학 등 연구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고, 이제껏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다양하게 정의 내리고 있다(이돈희, 1996).

먼저 Piaget(1932)는 <아동의 도덕판단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에서 도덕성이 정의의 문제라고 가정했으며, 도덕성을 규칙에 대한 존중으로서, 또는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피아제는 도덕성을 인간에 대한 존중과 규칙에 대한 존중의 태도로 정의함으로써 스스로를 Kant(1795)와 동일선상에 놓았는데, Kant의 도덕성 개념의 핵심은 인간존중의 개념, 즉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다루라는 정언적 명령이다. Kohlberg(1964)는 이런 시기에 Piaget의 도덕 판단력 발달 이론을 확대 발전시켜서 도덕을 어떤 삶의 장면에서 덕목(예컨대 정직)을 응용하거나 적용하는 규칙이나 원리로 발견하거나 찾아내는 판단의 능력이라 정의하여, 덕목과 덕목들 간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얼마나 판단을 잘 하는가 하는 능력이 도덕성이라고 보았다. Aristoteles는 도덕성을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덕목으로 보면서 그 덕목으로서 용기, 극기, 관대함, 훌륭한, 고상함, 친절, 진실, 기지, 정의를 열거했고, Gilligan(1977, 1982)은 이타심, 배려, 책임감 있는 사랑의 덕목으로 도덕성을 정의하였다(문용린, 2002).

도덕성은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언급되고 있다. 첫 번째, 어떤 행동이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적이고 인지적인 도덕적 판단, 둘째, 공감과 배려와 같은 정서적 반응인 도덕적 감정, 셋째,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실천을 중시하는 도덕적 행동이 그것이다. 오갑계(2002)는 도덕성이란 행동의 원리가 되는 규범을 창조하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행위의 판단 준거로 사용되는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로 정의 하였

고, 조은파(2012)는 도덕성을 자아실현의 넓은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인 인본주의 심리학 관점과 관계적 측면과 실천윤리의 측면인 ‘배려’를 강조한 배려윤리의 관점으로 정의를 내렸다. 그리고 김지희(2011)와 홍성훈(2004)은 도덕성을 아동이 건전한 사고와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사회생활의 규범이면서 인간이 행동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일종의 준칙으로서 평범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집단 속에서 인정하는 바람직한 행동규범에 부합되게 행동하고 사고하게 하는 행동의 체계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이 도덕성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을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서적 반응인 도덕적 마음가짐으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생각하고 실천하게 하는 행동의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도덕성 발달 이론

① 인지발달이론

인지발달이론은 도덕성발달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도덕적 판단에 관한 대부분의 이론과 연구는 인지발달이론에서 파생된 것이다. 도덕성발달의 인지적 측면은 Piaget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으며, 피아제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Kohlberg는 그의 유명한 도덕성발달이론을 정립하였다.

Piaget는 아동의 도덕성발달 단계를 타율적 도덕성(heteronomus morality)과 자율적 도덕성(autonomous morality)의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타율적 도덕성 단계의 아동(4~7세)은, 규칙은 신이나 부모와 같은 권위적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믿으며, 그 규칙은 신성하고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단계의 아동은 규칙은 변경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규칙을 따르는 것이 항상 ‘옳은’쪽이라 믿는다. 또한 행위의 의도성에 대한 이해에서도,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을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단지 행동의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한다(Shaffer, 1999).

7세부터 10세까지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이 함께 나타나는 시기이다. 그러나 10세경에 대부분의 아동은 두 번째 단계인 자율적 도덕성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 단계의 아동은 점차 규칙은 사람이 만든 것

이고, 그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도덕적 판단에서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는 융통성을 보인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행위의 결과가 아닌 의도성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정옥분, 2002).

Kohlberg는 1956년부터 10~16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 75명을 대상으로 하여 도덕성발달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연구는 30년 이상 계속되었다. Kohlberg(1976)는 피험자들에게 가상의 도덕적 갈등상황을 제시하고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에 따라 여섯 단계로 도덕성 발달수준을 구분하였다. 콜버그의 도덕성발달 단계는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 Kohlberg의 도덕성발달 단계

<p>전인습적 수준 (preconventional level) 사회적 규칙을 내면화하면서 기초 수준의 도덕성이 발달된다. 이 수준에서 아동은 외부의 권위를 포함하며 타인의 사회적 기대와 규칙을 내면화한다.</p>	1단계 벌 회피와 복종의 도덕성	복종해야 하는 불변의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이겼을 경우 벌을 받게 되며 벌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
	2단계 도구적 이기주의 도덕성	도덕적 행위가 자신과 타인을 만족시켜 주는 수단이지, 더 이상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p>인습적 수준 (conventional level) 이 수준에 있는 아동이나 청년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이제 도덕적 추론은 사회적 권위에 기초하여 보다 내면화된다. 그리고 사회관습에 걸맞은 행동을 도덕적 행동이라 간주한다.</p>	3단계 친애주의적 도덕성	동기와 감정이 정의로운가에 비추어 생각하며 결국 타인으로부터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한다.
	4단계 사회질서 유지의 도덕성	사회질서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고하며 사회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p>후인습적 수준 (postconventional level) 집단이나 집단 구성원들의 권위에서 벗어나고 그들과의 동일시를 넘어서서 나름대로 타당하고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도덕적 가치와 도덕 원리들을 중시한다.</p>	5단계 사회계약적 도덕성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동의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변경시킬 수 있다고 본다.
	6단계 보편적 윤리원리의 도덕성	가장 높은 도덕단계로서 옳고 그름을 개인 양심에 비추어 판단한다. 양심의 원리는 구체적인 규칙이 아니고 법을 초월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정당성'과 같은 보편적 원리에 대한 확신이다.

출처: 최태혁(2011). 중학생의 도덕성 발달과 학습태도 및 사회성의 관계 연구: 도덕 판단력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0-12.

② 사회학습이론

도덕적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동이 어떻게 사고하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다. 가령 도덕적 판단력이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쟁이, 사기꾼, 범죄자로 행동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사회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들로 하여금 올바른 행동을 하는 데 있다.

도덕적 행동은 주로 사회학습이론가들에 의해 연구되는데, 다른 모든 행동과 마찬가지로 강화, 처벌, 모방 등으로 설명한다. 법이나 사회관습에 일치하는 행동이 보상을 받으면 아동은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모델에 노출되면 아동 또한 그러한 행동을 채택하게 된다. 반면, 비도덕적인 행동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게 된다.

Bandura(1977)는 행위의 도덕기준이 학습과 모델링에 의해 설정되면 개인은 자기 평가적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진 아동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하위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기준들에 부합하거나 능가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보상하며, 그 기준에 미달할 때는 자신을 벌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통제의 과정이다(정옥분, 2002).

③ 정신분석이론

Freud(1933)는 인간의 성격구조는 원초아와 자아 그리고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도덕성발달은 초자아의 발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초자아는 남근기에 발생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결책으로 아동이 같은 성의 부모와 동일시하게 되면 초자아를 통해서 부모의 행동이나 가치기준을 내면화하게 된다. 이렇게 내면화된 부모의 가치기준이나 외적 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인생의 초기단계에 아동이 부모의 기준이나 사회의 규범에 적응하게 되면서 도덕성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도덕성이 발달함에 따라 아동은 사회의 규범을 내면화해서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죄책감이 형성되면 아동은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더욱더 사회의 규범에 순응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덕

성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Freud(1933)는 또한 여성의 도덕성발달은 불완전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초자아의 형성은 오직 거세불안에 의해서 완전해지는 것인데, 여성에게는 거세불안이 없는 만큼 약한 초자아를 발달시키게 되어 도덕적인 면에서 남자보다 덜 엄격한 편이라는 것이다. Hoffman(1980)은 남성보다 여성이 도덕적 원리를 보다 더 잘 내면화한다고 하면서, 이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 여성에게는 죄책감과 연결되나 남성에게는 탄로와 처벌의 두려움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정옥분, 2002).

이와 같이 살펴보면 아동은 11세경에 도덕성발달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서 새로운 규칙을 생성할 수 있으며,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전쟁, 환경, 공해 문제 등 폭넓은 사회 및 정치적 차원으로 도덕적 추론을 확대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시기는 도덕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보아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4, 5, 6학년으로 설정하였다.

2) 도덕지능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도덕지능의 개념

도덕성을 가드너의 재능을 지능으로 전환하여 바라보는 관점과 같이 기존의 도덕성과 관련된 아이들의 행동과 특성을 ‘지능’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도덕지능은 지능이라는 새로운 관점과 각도로 도덕성을 바라보기에 같은 기준을 가진 다른 지능과의 관계 규명 및 차이점, 공통점을 통해 도덕성이나 도덕적 성향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정수연, 2010).

도덕지능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도덕지능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에서조차 차이가 있다. 다음 <표 2>는 학자들마다 내린 도덕지능의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학자들의 도덕지능의 정의

학자	도덕지능의 정의
Boss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음 · 인지적 요소인 추론(도덕적 판단)만이 아니라 보살핌, 덕성 공감과 같은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동기화 및 도덕적 실행력이 포함 · 분석적 추론보다는 도덕적 직관, 즉 도덕적 감각이나 양심에 주목하고 있으며, 양심은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를 모두 포함
Coles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태도 · 착하고 친절하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 인간 마음의 정의적, 인지적 자원을 활용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Borba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지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 확고한 윤리적 신념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올바르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한다는 의미 · 도덕지능 구성요소로 공감능력, 양심, 자제력, 존중심, 친절, 관용, 공정성 등 7개의 덕목을 제시
Lennick & Kiel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보편원칙들이 가치관과 목표, 활동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판단하는 심적인 능력으로, 도덕지능은 보편원칙에 따라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능력
정수연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삶과 인관관계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려는 윤리적인 마음가짐과 실천적 지혜 · 상대방을 배려하는 도덕적인 마음가짐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출처: 김정은(2011). 초등학교의 도덕지능, 친사회적 행동, 정서지능 간의 관계.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앞서 정의들을 종합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이나 ‘올바른 도덕적 태도’에 대한 이해와 방향 즉, 도덕과 내부의 과제를 더욱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도덕성과 도덕지능을 같은 범주에 두거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2) 도덕지능의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도덕지능을 연구한 Borba(2001)와 정종진(2009)의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Borba(2001)와 정

종진(2009)은 도덕지능을 이루는 7가지 필수덕목에 따라 도덕지능의 구성요인을 공감능력, 양심, 관용, 친절, 자제력, 존중심, 공정성으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공감능력(empathy): 타인의 문제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감정이입의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인간성과 공손한 언행, 덕성을 강화하는 덕목으로서, 남의 어려운 상황을 무심히 넘기지 않고 양심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정서이다. 공감을 할 줄 아는 아동은 이해심이 많아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며, 또한 좀 더 능숙하게 분노를 억제할 수 있게 된다.

② 양심(conscience):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강력한 내면의 목소리를 말한다. 이것은 아동이 나쁜 길로 빠질 때마다 적절한 죄의식으로 아동을 반성하도록 이끌며, 심지어 유혹에 직면했을 때도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이끄는 덕목이다. 양심은 올바른 생활과 건전한 시민정신, 분별력 있는 윤리적인 행동을 위한 기초가 된다.

③ 관용(tolerance): 다른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증오와 폭력과 완고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친절과 존중, 이해심으로부터 타인을 대하도록 이끌어주는 덕목이다. 관대한 아동들은 누군가의 견해나 신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존중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런 능력 때문에 잔인함과 편협한 신념과 인종주의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

④ 친절(kindness): 타인의 행복과 기분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예의와 인정(人情) 및 도덕성을 키워주는 행동이며, 악행보다는 선행을 하려는 의도를 전제로 한다. 친절을 갖춘 아동들은 마음 속 깊이 내적 도덕성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침을 갖고 있다. 이 지침은 타인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아동들에게 가르쳐준다. 그렇게 행동하는 동기는 보상을 바라서도 아니고, 친절하지 않으면 벌을 받거나 사회적 승인을 잃어서도 아니다. 마음이 따뜻한 아동들은 그저 타인의 기분과 욕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친절하다.

⑤ 자제력(self-control): 옳다고 판단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행동을 조절하고, “안 돼!”라고 말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도와주며, 도덕적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을 말한다. 이것은 아동들이 좀 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덕적 행동을 안내해 주는 강력한 내제 기제(internal mechanism)로서, 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도덕적 힘이다.

⑥ 존중심(respect): 사람이나 물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아동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남을 대하도록 이끄는 덕목으로서, 폭력과 부당함과 증오를 막는 기초가 된다.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남을 대할 때 세상은 좀 더 도덕적인 곳이 될 수 있다. 존중하는 마음이 일상화된 아동들은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며, 자기 자신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존중심은 친절한 사람,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을 만드는 요소이다.

⑦ 공정성(fairness): 편견 없이 올바르게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특성이 발달한 아동들은 규칙에 맞게 경기하고, 서로 양보하고, 교대로 공유하며,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 모든 입장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한다. 이 덕목은 도덕적 감수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아동은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을 변호하고 인정과 문화, 경제상태, 능력이나 신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라고 요구할 용기를 가지게 된다.

3. 학교생활적응

1) 학교생활적응의 개념

인간의 삶은 개인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적응하는 과정이다. 적응과정은 개인과 환경의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으로, 개인이 환경의 요구에 맞추어 가는 순응과정(accommodation)과 개인의 요구에 맞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가는 동화과정(assimilation)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향해 적응하며 살아야 한다(권석만, 2003).

적응이란 개인의 필요와 사회가 지니고 있는 요청이 모두 충족되고 개인과 객관

적인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또한 적응은 환경과 개인 사이의 조화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개인의 필요의 적절한 충족이 환경과 갈등관계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적응은 유기체의 필요의 다양성과 환경적 특징의 다양성 때문에 제각기 다른 상태와 과정이 될 수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학교생활은 학생으로서 학교에 학적을 두고 지내는 생활을 말 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적응이란 이러한 용어에 적응의 의미를 합하여 이루어진 개념이다. 즉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경험적 상황에서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이다(박원경, 2006).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Bierman(1994)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고,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Ladd와 동료들(1996)은 개인이 학교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편안하게 참여하며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김용래(1993)가 학교생활적응은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차원의 특성을 공유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며, 민영순(1995)은 학교생활에서 대인관계나 학교 규칙, 질서 등에 있어서 조화 있는 행동을 하여 만족하는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이미라(2001)는 학교의 총체적인 영향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상태로 학교생활에 적응시키고, 더 나아가 학교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한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였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의미를 정의해 보면 학생이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환경에 혹은 환경을 자신에게 맞게 변화시키며 적응시켜가는 과정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정해지는 규칙과 교사 및 친구와의 대인관계적인 측면을 학교생활의 범위로 보고 적응을 하는 정도를 말할 수 있다(박서연, 2013).

즉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갈등 혹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점차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부적응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만 자신을 둘러싼 환경 안에서 마찰

없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다면 이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임지현, 2009).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응 및 부적응을 나타내는 현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는 것은 자신을 학교환경에 잘 맞추며 생활해 가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학교생활에 부적응적인 면을 보인다는 것은 자신이 학교생활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교환경에 맞추어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2)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인

본 연구는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인으로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을 포함하는 김아영(2002)의 척도를 따르며, 그에 따른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① 교사관계: 아동과 교사의 조화로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생활 속에서 교사와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교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의 표현성, 교사의 긍정적 지지 여부 등으로 표출되는데,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관계가 원만할수록 교사관계적응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교우관계: 아동과 친구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급우간의 인기정도, 친구관계의 질 등을 나타낸다. 따라서 급우간의 인기가 많고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가 많을수록 교우관계적응이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학교수업: 아동이 학교수업에 보이는 흥미를 보이고 주의를 기울여 이해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수업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여 과제를 해결할수록 학교수업적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④ 학교규칙: 학교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여 규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며, 요구되는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킬수록 학교규칙적응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자아존중감과 도덕성 및 학교생활적응 과의 관계

1) 자아존중감과 도덕성과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은 정의적 특성 중 하나로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자아실현을 하면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것은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말한다. 무조건적 존중과 수용을 통해 참자아를 발견하며 이 과정에서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어 심리적 건강을 얻고 자아실현을 이루며 도덕적 인간이 된다고 하였다(조은파, 2012).

EBS 제작팀(2009)이 실험한 아이의 사생활에서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아이들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 따뜻한 아이는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해도 책망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보듬어 안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으며,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공감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은파(2012)는 자신을 잘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이는 타인배려와 관계있는 도덕성이 높을 것이라는 말과 연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의 관계가 밀접할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아존중감과 도덕성과의 관계를 설명해준다. 최근 많은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지고 있으나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2)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자아존중감은 적응의 영향요인으로서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도 밀접한 영향을 준다.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전체 학교생활적응의 관계가 모두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설경숙, 2005).

김영길(1976)은 비행소년집단의 자아존중감이 정상소년집단보다 낮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정희(1968)는 신경성 소년집단의 자아존중감이 정상소년집단 보다 더 낮음을, 조대봉(1973)은 고등학교 학생집단에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적응 간에는 확실

히 상관성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보다 더 잘 적응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윤희준(1976)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은 부적응, 행동의 징후를 보이거나 그러한 인성특질을 지니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권순명(1976)은 자아존중감이 직업만족과 직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교사의 연수성적과도 극히 낮으나 정적인 상관성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심수정, 2003).

최성순(2014)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에 대한 높은 신뢰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며 또 인정을 받고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특성이 있음을 나타냈고, 채영이(2006)도 자아존중감 수준이 전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 중 학업자아감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 학업자아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행동과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아존중감이 적응 및 행동과 밀접하게 관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3) 도덕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최근에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살펴보면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성폭력 등 도덕성과 밀접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동의 도덕발달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avoie(1974)에 의하면 도덕성 발달이 미숙한 아동은 자기보다 높은 도덕적 판단 수준에 있는 성인보다 오히려 자신과 동등한 수준을 가진 동료집단의 지향에 순응하는 편이 용이하므로 동료집단의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비행청소년의 경우는 정상청소년보다 도덕발달 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으므로 도덕성 판단에 있어서 비교적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박대엽, 1988; 한영희, 2000).

박옥자(2012)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와 충동성,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또래 관계와 충동성과의 관계,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이는 자제력과 자기통제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덕성과 또래집단과의 관계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다시 도덕성이 학교

생활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권주임(2013)과 정지아(2010)는 도덕성 발달 수준에 따라 집단 간에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으며, 도덕성 발달 수준이 높은 집단이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본생활습관, 자아확립 및 효도, 경애, 공동체 의식을 도덕성의 내용으로 본 강원도교육청(1995)의 연구 중 자신의 바람직한 감정, 판단, 태도, 행동에 관한 측면인 자아확립의 덕목 요소는 일상생활을 통해 주관적인 즐거움에 필요한 주체적인 생활습관을 자천하여 습관화 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기, 작은 일이라도 남을 속이지 않기 등의 정직과 자기가 한 일을 끝까지 하기,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하기 등의 근면 성실과 학습 과제를 자신의 힘으로 처리하기,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실천하기 등의 자주와 텔레비전을 정해진 시간에 보기, 군것질 안하기 등의 절제가 이에 속한다.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절제하며 노력해야 하는 상황인 학업 성취에의 상황이 근면, 성실, 자주 및 절제의 측면과 많은 관련이 있을 것이며, 자아확립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습관화되면 이것이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성실’과 ‘책임’은 도덕지능이 높은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으로서(Doug, L., Fred, K., 2006), 이 덕목은 아동들의 학습과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정지아, 2010).

위 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도덕성, 학교생활적응은 서로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초등학생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도덕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이나 학교상담사업에서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도덕성, 학교생활적응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자아존중감, 도덕성, 학교생활적응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자아존중감에 따라 도덕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5.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아존중감, 도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2014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성별과 학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당 및 편의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초등학교 5개교에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48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자료 1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65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일부 문항을 삭제하거나 수정·보완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8문항,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 도덕성 척도 49문항, 학교생활적응 척도 20문항 등 총 8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기보고식 검사로 이루어졌고, 측정도구의 내용과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학년, 경주수준 인지도, 가족구성원 수, 가족형태, 부모직업, 부모연령, 종교 등이 포함되었으며, 선다형, 또는 서술형으로 구성되었다.

2)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전병재(1974)가 우리 문화에 적합하도록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별 문항 수와 신뢰도는 <표 3> 과 같다.

긍정적 진술 문항 5문항과 부정적 진술 문항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척도로서 부정적 진술 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 α
긍정적 문항	5	1, 2, 4, 6, 7	.87
부정적 문항	5	3*, 5*, 8*, 9*, 10*	.64
자아존중감 전체	10		.80

주) *표시는 역채점 문항

3) 도덕성 척도

도덕성 척도는 정종진(2009)이 연구 개발한 도덕지능 검사 척도(Moral Intelligence Checklist: MIC)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요인과 문항 수 및 신뢰도는 <표 4> 와 같다. 검사개발 당시 신뢰도는 .74-.87이었으나 재검사 신뢰도는 .82-.92로 양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Cronbach' α* 값이 .80~.89로 나타났으며, 전체 *Cronbach' α* 값이 .98로 양호한 편이었다.

도덕지능 측정도구는 공감능력, 양심, 관용, 친절, 자제력, 존중심, 공정성 등 7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4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도덕지능 척도

도덕지능		문항 수	문항번호	<i>Cronbach' α</i>
하위 요인	공감능력	7	1, 8, 15, 22, 29, 36, 43	.88
	양심	7	2, 9, 16, 23, 30, 37, 44	.85
	관용	7	3, 10, 17, 24, 31, 38, 45	.86
	친절	7	4, 11, 18, 25, 32, 39, 46	.89
	자제력	7	5, 12, 19, 26, 33, 40, 47	.80
	존중심	7	6, 13, 20, 27, 34, 41, 48	.82
	공정성	7	7, 14, 21, 28, 35, 42, 49	.86
도덕지능 전체		49		.98

4) 학교생활적응 척도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박서연(2013)이 타당화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박서연(2013)은 김아영(2002)이 『학교동기 표준화 연구』에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척도(School Adjustment : SA)'를 6점 Likert척도에서 Liket 4점 척도로 수정하여 타당화하였다. 하위요인과 문항 수 및 신뢰도는 <표 5> 와 같다.

이 척도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의 각 요인별로 5문항씩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t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전체 *Cronbach' α* 값은 .89였고, 하위요인 별로 교사관계 .80, 교우관계 .78, 학교수업 .79, 학교규칙 .76로 나타났다.

<표 5> 학교생활적응 척도

학교생활적응		문항 수	문항번호	<i>Cronbach' α</i>
하위	교사관계	5	1, 5, 9, 13, 17	.80
	교우관계	5	2, 8, 12, 16, 20*	.78
요인	학교수업	5	3, 7, 10, 14, 18*	.79
	학교규칙	5	4, 6, 11, 15, 19	.76
학교생활적응 전체		20		.89

주) *표시는 역채점 문항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빈도분포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 도덕성, 학교생활적응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을 이용하여 *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도덕성, 학교생활적응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넷째,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도덕성,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하위집단 간의 차이는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Scheffe's Multiple Range Test)으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자아존중감, 도덕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및 도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표 6> 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50.5%, 여학생이 49.5%이었고, 학년은 4학년이 32.9%, 5학년이 32.5%, 6학년이 34.6%이었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보통이다’가 4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잘 산다’가 30.1%, ‘매우 잘 산다’가 11.6%이었고, ‘잘 살지 못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종교는 없는 사람이 35.3%였으며, 그 다음으로 불교가 20.9%, 기독교(개신교)가 10.1%, 천주교가 6.2%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은 40대가 57.8%, 52.2%로 가장 많았고 부연령은 50대 이상이 10.5%, 30대가 7.7% 순이었으며, 모연령은 20~30대가 19.3%, 50대 이상이 4.1%순이었다. 부직업은 공무원·회사원이 26.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술기능직이 25.6%, 자영업·서비스업이 11.0%, 전문직이 5.2%, 농업·어업·임업이 3.0%, 무직이 1.1% 순이었다. 모직업은 기능기술직이 22.2%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회사원이 23.5%, 자영업·서비스업이 15.1%, 전업주부가 13.5%, 전문직이 4.3%, 농업·어업·임원이 .6%, 기타가 .2% 순이었다. 가족구성원은 핵가족이 75.1%이었고, 확대가족이 18.1%, 한부모가족이 6.7%, 형제자매는 .2%로 나타났다. 가족 수는 4인이 4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인이 30.8%, 6인 이상이 14.8, 3인 이하가 10.5%이었다.

<표 6>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항목	구분	N (%)	항목	구분	N (%)
성별	남	235 (50.5)	학년	초4	153 (32.9)
	여	230 (49.5)		초5	151 (32.5)
	계	465 (100)		초6	161 (34.6)
			계	465 (100)	
경제수준 인지도	보통이다	157(45.8)	종교	기독교(개신교)	47(10.1)
	잘 산다	140(30.1)		천주교	29(6.2)
	매우 잘 산다	54(11.6)		불교	97(20.9)
	계	351(75.5)		없음	164(35.3)
			계	337(72.5)	
가족형태	핵가족	342 (75.1)	가족 수	3인 이하	49 (10.5)
	확대가족	84 (18.1)		4인	200 (43.7)
	한부모가족	31 (6.7)		5인	141 (30.8)
	형제자매	1 (.2)		6인 이상	68 (14.8)
	계	465 (100)		계	458 (98.5)
부연령	30대	36 (7.7)	모연령	20~30대	90 (19.3)
	40대	269 (57.8)		40대	242 (52.0)
	50대 이상	49 (10.5)		50대 이상	19 (4.1)
	계	345 (76.1)		계	351 (75.5)
부직업	전문직	24 (5.2)	모직업	전문직	20 (4.3)
	공무원·회사원	121 (26.0)		공무원·회사원	80 (23.5)
	기능기술직	119 (25.6)		기능기술직	103 (22.2)
	자영업·서비스업	51 (11.0)		자영업·서비스업	70 (15.1)
	농업·어업·임업	14 (3.0)		농업·어업·임업	3 (.6)
	무직	5 (1.1)		전업주부	63 (13.5)
	계	329 (70.8)		기타	1 (.2)
			계	330 (71.1)	

주) 무응답으로 빈도수의 차이가 있음

2.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도덕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일반적 경향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도덕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자아존중감과 도덕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N=465)

변인		M	SD
자아존중감		2.76	.32
도덕성	공감능력	3.74	.73
	양심	3.86	.65
	관용	3.80	.68
	친절	3.78	.70
	자제력	3.79	.70
	존중심	3.75	.73
	공정성	3.80	.71
도덕성 전체		3.78	.67
학교생활적응	교사관계적응	3.06	.59
	교우관계적응	2.94	.44
	학교수업적응	2.97	.45
	학교규칙적응	3.26	.52
	학교생활적응 전체	3.06	.42

주)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은 4점 척도이며, 도덕성은 5점 척도임

<표 2>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2.72(SD=.43)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인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78(SD=.67)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양심이 3.86(SD=.65)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관용이 3.80(SD=.68), 공정성이 3.80

(SD=.71), 자제력이 3.79(SD=.70), 친절이 3.78(SD=.70), 존중심이 3.75(SD=.73), 공감 능력이 3.74(SD=.73) 순이었다.

학교생활적응은 4점 만점에 평균 3.06(SD=.42)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규칙적응이 3.26(SD=.52)으로 가장 높았고, 교사관계적응이 3.06(SD=.59), 학교수업적응이 2.97(SD=.45), 교우관계적응이 2.94(SD=.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은 학교규칙에 적응하는 면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초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도덕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자아존중과 도덕성 및 학교 생활적응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집단 간의 차이는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초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초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아버지의 연령이었고, 성별, 학년, 경제수준 인지도, 종교 유무, 가족 수, 부모 유무, 모연령 요인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범위검증결과에 의하면, 40대인 집단과 30대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50대 이상 집단과 30대 및 40대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아버지의 연령이 40대인 집단이 30대 이하인 집단과 50대 이상인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40대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다는 선행연구(황보영, 2009; 김현준, 2013)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사회인구학적 요인		M	S	SD	t/F
성별	남	27.32		3.46	-1.93
	여	28.02		4.29	
학년	4학년	27.27		3.53	1.26
	5학년	27.76		3.34	
	6학년	27.79		2.72	
경제 수준 인지도	보통	27.09		3.49	2.64
	잘 산다	27.70		2.94	
	매우 잘 산다	28.15		3.07	
종교	유	27.63		3.20	.48
	무	27.40		3.32	
가족수	3인 이하	27.14		2.32	.68
	4인	27.79		3.29	
	5인	27.36		3.14	
	6인 이상	27.60		3.21	
부모	유	27.63		3.20	.48
	무	27.40		3.32	
부연령	30대	25.72	a	4.63	6.56**
	40대	27.80	b	3.07	
	50대 이상	27.47	ab	2.91	
모연령	20대~30대	27.01		3.97	1.55
	40대	27.72		3.02	
	50대 이상	27.63		3.28	

1) ** p<.01

2) S는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 결과이며, 다른 문자끼리 유의한 의미가 있음.

2) 초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

초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공감능력과 양심, 공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경제수준 인지도, 종교, 부연령이었으며, 관용과 친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경제수준 인지도, 종교였다. 자제력과 존중심에는 성별과 경제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공감능력은 아버지의 연령은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다중범위검증결과에 의하면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경제수준 인지도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매우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잘산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심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높았다. 아버지의 연령은 40대 집단이 50대 이상 집단보다 높았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보통이라고 생각한 집단과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용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높았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절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높았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매우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매우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제력과 존중심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보통이라고

생각한 집단과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잘 산다고 응답한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높았다. 아버지의 연령은 40대 집단과 50대 이상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40대집단이 50대 이상 집단보다 높았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보통이라고 생각한 집단과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잘 산다고 생각한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별은 공감능력, 양심, 관용, 친절, 자제력, 존중심, 공정성 등 도덕성 하위요인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ohlberg는 도덕발달에 있어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성숙하다고 했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도덕성 발달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은 도덕발달을 보인다는(김상윤, 2006; 조발그니, 2007;) 연구와 친사회적 행동과 일탈행위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김경연, 하영희, 1998; 김정규, 2006b) 연구와 부합하였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해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수준 인지도에서 자신이 잘 산다고 생각할수록 도덕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종교유무는 공감능력, 양심, 관용, 친절, 공정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자제력과 존중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공감능력, 양심, 관용, 친절, 공정성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가 도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강영만(1995)의 연구와 일치했다. 종교는 사랑, 희생, 봉사, 인내, 겸양의 덕을 가르치고 있다. 모든 종교는 도덕적으로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악한 생활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치며 신과 성현들의 도움으로 선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종교를 갖고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아버지의 연령은 공감능력, 양심, 공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관용, 친절, 자제력, 존중심에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중범위검증결과에 의하면 공감능력은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심과 공정성은 아버지 연령이 40대인 집단이 50대 이상인 집단보다 높았다.

<표 9>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개인적 특성에 따른 도덕성

요인		공감능력		양심		관용		친절		자제력		존중심		공정성		전체	
		M(SD)	S	M(SD)	S	M(SD)	M(SD)	S	M(SD)	S	M(SD)	S	M(SD)	S	M(SD)	S	
성별	남	24.72 (5.25)		25.85 (4.62)		25.68 (4.99)		25.09 (5.09)		25.63 (5.08)		25.24 (5.25)		25.16 (5.20)		177.40 (32.83)	
	여	27.73 (4.46)		28.21 (4.20)		27.58 (4.31)		27.81 (4.28)		27.25 (4.71)		28.02 (4.29)		27.25 (4.29)		193.99 (27.68)	
	t	-6.66***		-5.76***		-4.39***		-6.12***		-3.87***		-4.33***		-6.48***		-5.89***	
학년	4	26.21 (5.30)		26.93 (4.93)		27.02 (4.97)		26.75 (5.13)		26.69 (5.19)		26.74 (5.09)		26.72 (5.22)		187.08 (32.90)	
	5	26.67 (5.43)		27.14 (4.79)		26.49 (5.41)		26.56 (5.36)		26.26 (5.24)		26.17 (5.53)		26.80 (5.40)		186.11 (34.60)	
	6	25.78 (4.55)		26.98 (4.00)		26.36 (3.80)		26.01 (4.15)		26.53 (4.36)		25.82 (4.62)		26.22 (4.27)		183.72 (26.76)	
	F	1.18		.09		.82		.97		.30		1.30		.63		.47	
경제수준인지도	보통	25.18 (5.50)	a	25.96 (5.05)	a	25.29 (5.27)	a	25.42 (5.50)	a	25.13 (5.42)	a	24.83 (5.53)	a	25.52 (5.41)	a	177.33 (2.81)	a
	잘 산다	26.32 (4.58)	ab	27.47 (4.16)	b	27.05 (4.13)	b	26.84 (4.18)	ab	27.18 (4.17)	b	26.99 (4.37)	b	27.04 (4.54)	b	188.89 (27.16)	b
	매우 잘 산다	27.70 (5.62)	b	28.35 (5.23)	b	28.26 (5.16)	b	27.81 (5.67)	b	28.04 (5.50)	b	28.35 (5.31)	b	27.56 (5.89)	b	196.07 (34.86)	b
	F	5.18**		6.59**		9.36***		5.59**		9.71***		12.34***		4.70**		8.66***	
종교	유	27.13 (4.85)		27.77 (4.40)		27.29 (4.61)		27.35 (4.63)		27.03 (4.57)		26.83 (4.88)		27.43 (5.00)		190.83 (30.16)	
	무	25.10 (5.39)		26.10 (5.07)		25.86 (5.16)		25.57 (5.44)		26.08 (5.51)		25.80 (5.46)		25.71 (5.30)		180.47 (34.46)	
	t	3.63***		2.76**		2.67**		3.21***		1.72		1.82		3.05**		2.93**	
가족수	3인 이하	25.61 (4.46)		26.47 (4.54)		26.02 (4.13)		26.02 (4.31)		25.88 (4.28)		25.20 (4.60)		25.71 (4.12)		180.92 (27.30)	
	4인	26.45 (4.83)		27.32 (4.20)		26.89 (4.49)		26.73 (4.70)		27.05 (4.52)		26.71 (4.86)		27.20 (4.56)		188.34 (29.15)	
	5인	26.07 (5.36)		26.91 (5.06)		26.38 (5.16)		26.09 (5.20)		26.18 (5.52)		26.23 (5.34)		26.36 (5.40)		184.22 (34.56)	
	6인 이상	26.46 (5.75)		26.82 (4.65)		26.93 (5.16)		26.68 (5.30)		26.12 (5.21)		25.72 (5.55)		26.01 (5.48)		184.74 (34.23)	
	F	.45		.59		.68		.63		1.40		1.48		1.94		.97	
부모	유	26.33 (5.73)		27.12 (4.51)		26.72 (4.75)		26.53 (4.85)		26.63 (4.92)		26.40 (5.01)		26.72 (4.98)		186.46 (31.22)	
	무	25.35 (5.28)		26.21 (5.03)		25.85 (4.81)		25.71 (5.24)		25.42 (4.91)		24.98 (5.59)		25.46 (4.85)		178.98 (33.24)	
	t	1.27		1.24		1.24		1.07		1.67		1.74		1.76		1.54	
부연령	30대 이하	24.89 (5.23)		27.00 (4.78)	ab	25.94 (5.01)		25.58 (5.49)		25.58 (5.43)		25.67 (5.94)		25.22 (6.09)	ab	179.89 (34.44)	
	40대	26.43 (5.27)		27.20 (4.81)	a	26.69 (5.04)		26.65 (5.12)		26.67 (5.13)		26.46 (5.19)		26.92 (5.09)	a	187.03 (32.95)	
	50대 이상	24.73 (4.63)		25.92 (4.38)	b	25.47 (4.18)		25.31 (4.50)		25.43 (4.70)		24.96 (4.70)		24.94 (4.89)	b	176.12 (29.43)	
	F	3.21*		3.38*		1.47		1.90		1.73		1.91		4.22*		2.77	
모연령	30대 이하	25.58 (5.22)		26.94 (4.59)		26.33 (4.79)		26.10 (5.33)		25.66 (5.20)		26.03 (5.25)		25.97 (5.41)		182.61 (32.38)	
	40대	26.30 (5.21)		26.99 (4.88)		26.52 (5.02)		26.48 (5.04)		26.48 (5.17)		26.27 (5.22)		26.64 (5.20)		185.83 (33.17)	
	50대 이상	26.21 (4.74)		26.79 (4.65)		26.95 (4.63)		27.21 (4.02)		27.05 (4.25)		26.42 (4.50)		27.37 (4.50)		188.00 (29.99)	
	F	.63		.02		.13		.43		1.38		.08		.81		.39	

1) * p<.05 ** p<.01 *** p<.001

2) S는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 결과이며, 다른 문자끼리 유의한 의미가 있음.

3) 초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초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 과 같다.

교사관계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학년, 경제수준 인지도, 종교 유무, 아버지 연령이었으며, 교우관계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경제수준 인지도, 종교 유무, 가족 수, 부모연령이었다. 학교수업적응에는 성별, 경제수준 인지도, 종교 유무, 가족 수, 아버지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규칙적응에는 성별, 학년, 경제수준 인지도, 종교 유무, 부모 유무, 아버지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적응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높았다. 4학년 및 6학년과 5학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5학년이 4학년 및 6학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매우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매우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은 40대 집단과 50대 이상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인 집단이 50대 이상인 집단보다 높았다.

교우관계적응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매우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매우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는 3인 이하 집단과 4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4인 집단이 3인 이하 집단보다 높았다. 부모연령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 결과에 의하면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업적응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높았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보통이라고 생각한 집단과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잘 산다고 응답

한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와 아버지 연령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 결과에 의하면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칙적응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 및 5학년과 6학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4학년 및 5학년이 6학년보다 높았다. 경제적 수준 인지도는 보통이다, 잘 산다, 매우 잘 산다고 응답한 집단들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잘 산다고 생각 할수록 학교규칙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연령은 40대 집단과 50대 이상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인 집단이 50대 이상인 집단보다 높았다. 부모 유무에서는 부모와 함께 사는 집단이 한부모와 사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성별은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규칙적응 등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 적응을 더 잘한다는 선행 연구(2006: 신윤자, 2005; 최미자, 2006; 채호숙, 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

학년은 교사관계적응과 학교규칙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적응에서는 5학년이 4학년 및 6학년보다 높았으며 학교규칙적응에서는 4학년 및 5학년이 6학년보다 높았다. 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대체로 4학년과 6학년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규칙적응 등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사관계적응과 교우관계적응은 보통이나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매우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높았고, 학교수업적응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해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높았으며, 학교규칙적응은 보통이다, 잘 산다, 매우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들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잘 산다고 생각 할수록 학교규칙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에서는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규칙적응 등 학교생활적응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는 집

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는 교우관계적응과 학교수업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교우관계적응에서는 4인 집단이 3인 이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학교수업적응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유무는 학교규칙적응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집단이 한부모, 조부모와 살고 있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보다 학교규칙에 더 잘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 연령은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규칙적응 등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적응과 학교규칙적응에서 어머니 연령이 40대인 집단이 50대 이상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우관계적응과 학교수업적응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은 교우관계적응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관계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규칙적응에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요인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규칙적응		전체	
		M(SD)	S	M(SD)	S	M(SD)	S	M(SD)	S	M(SD)	S
성별	남	14.79(2.96)		14.40(2.07)		14.61(2.27)		15.79(2.61)		59.60(8.25)	
	여	15.80(2.88)		14.98(2.23)		15.08(2.17)		16.80(2.43)		62.69(8.05)	
	t	-3.75***		-2.93**		-2.28*		-4.34***		-4.08***	
학년	4학년	14.82(3.18)	a	14.70(2.21)		14.87(2.29)		16.72(2.44)	a	61.11(8.34)	
	5학년	15.72(2.84)	b	14.75(2.39)		14.96(2.24)		16.23(2.55)	a	61.67(8.46)	
	6학년	15.34(2.80)	a	14.62(1.92)		14.72(2.17)		15.95(2.69)	b	60.64(8.10)	
	F	3.56*		.149		3.61		.44*		.55	
경제수준인지도	보통이다	14.65(3.11)	a	14.31(2.39)	a	14.36(2.34)	a	15.69(2.62)	a	59.01(8.92) a	
	잘 산다	15.26(2.73)	a	14.83(2.09)	a	15.10(2.16)	b	16.40(2.43)	b	61.59(7.67) b	
	매우 잘산다	16.00(3.31)	b	15.37(1.84)	b	15.37(2.46)	b	17.50(2.24)	c	64.24(8.34) b	
	F	4.40**		5.20**		5.73**		11.05***		8.80***	
종교	유	15.60(2.87)		15.15(2.17)		15.24(2.26)		16.60(2.46)		62.59(8.11)	
	무	14.66(3.14)		14.33(2.18)		14.52(2.37)		15.97(2.58)		59.48(8.67)	
	t	2.85**		3.46**		2.84**		2.31*		3.40**	
가족수	3인 이하	15.14(2.86)		14.02(2.21)	a	14.53(2.36)		15.71(2.67)		59.41(7.97)	
	4인	15.64(2.73)		15.02(2.10)	b	15.02(2.09)		16.51(2.44)		62.19(7.76)	
	5인	15.14(3.10)		14.82(2.16)	ab	15.03(2.22)		16.40(2.40)		61.18(8.19)	
	6인 이상	14.75(3.34)		14.40(2.28)	ab	14.15(2.47)		15.92(3.19)		59.22(9.94)	
	F	1.85		3.61*		3.29*		1.83		3.01*	
부모	유	15.33(2.92)		14.72(2.10)		14.89(2.23)		16.39(2.53)		61.33(8.22)	
	무	15.00(3.30)		14.46(2.72)		14.50(2.27)		15.55(2.77)		59.52(9.61)	
	t	.69		.66		1.17		2.06*		1.34	
부연령	30대	14.14(3.14)	ab	14.03(2.07)		14.19(2.46)		15.77(2.71)	ab	58.14(8.68) ab	
	40대	15.41(2.94)	a	14.86(2.18)		14.99(2.27)		16.43(2.55)	a	61.70(8.32) a	
	50대 이상	14.20(3.09)	b	14.20(2.01)		14.22(2.50)		15.42(2.57)	b	58.06(8.56) b	
	F	5.55**		3.78*		3.64*		3.75*		5.95**	
모연령	20~30대	14.93(3.09)		14.21(2.25)		14.63(2.24)		16.15(2.56)		59.93(8.40)	
	40대	15.19(2.95)		14.88(2.19)		14.89(2.36)		16.32(2.58)		61.29(8.56)	
	50대 이상	15.11(3.40)		14.79(2.22)		14.89(2.40)		15.89(2.84)		60.68(8.33)	
	F	.24		3.03*		.40		.34		.84	

1) * p<.05 ** p<.01 *** p<.001

2) S는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 결과이며, 다른 문자끼리 유의한 의미가 있음.

3) 상·중·하 집단은 평균±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음.

4. 자아존중감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

자아존중감에 따라 도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하위집단 간의 차이는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 과 같다.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공감능력, 양심, 관용, 친절, 자제력, 존중심, 공정성 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중, 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도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도 알 것이라는 조은파(2012)의 연구와 일치했다.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의 관계에서는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도 알기에 자아존중감이 도덕성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11> 자아존중감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

집단	빈도	공감능력		양심		관용		친절		자제력		존중심		공정성		전체	
		M(SD)	S	M(SD)	S	M(SD)	S	M(SD)	S	M(SD)	S	M(SD)	S	M(SD)	S	M(SD)	S
하	102	23.73 (5.45)	a	24.92 (5.05)	a	24.66 (5.09)	a	24.26 (5.45)	a	24.27 (5.43)	a	25.25 (5.30)	a	24.31 (5.44)	a	170.40 (34.98)	a
중	257	26.16 (4.89)	b	27.10 (4.41)	b	26.27 (4.54)	b	26.33 (4.64)	b	26.59 (4.79)	b	26.10 (4.98)	b	26.52 (4.72)	b	185.26 (30.28)	b
상	106	28.74 (5.01)	c	28.85 (3.57)	c	28.90 (3.96)	c	28.78 (3.83)	c	28.41 (3.80)	c	28.49 (4.21)	c	28.90 (4.01)	c	201.06 (22.37)	c
F		28.04 ^{***}		20.90 ^{***}		22.93 ^{***}		24.50 ^{***}		19.84 ^{***}		19.80 ^{***}		24.30 ^{***}		27.50 ^{***}	

1) *** p<.001

2) S는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 결과이며, 다른 문자끼리 유의한 의미가 있음.

3) 상·중·하 집단은 평균±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음.

5.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1) 자아존중감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자아존중감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하위집단 간의 차이는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2> 와 같다.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교수업적응 등 학교생활적응 전체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교수업적응은 모두 상, 중, 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2> 자존감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집단	빈도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규칙적응		전체	
		M(SD)	S	M(SD)	S	M(SD)	S	M(SD)	S	M(SD)	S
하	102	13.63 (2.86)	a	13.31 (2.26)	a	13.57 (2.43)	a	14.84 (3.00)	a	55.35 (8.59)	a
중	257	15.47 (2.81)	b	14.76 (1.97)	b	14.81 (1.92)	b	16.44 (2.37)	b	61.49 (7.39)	b
상	106	15.85 (2.63)	c	15.85 (1.82)	c	16.18 (1.98)	c	17.32 (1.92)	c	65.82 (6.69)	c
F		27.83***		41.91***		28.03***		41.94***		50.96***	

1) *** p<.001

2) S는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 결과이며, 다른 문자끼리 유의한 의미가 있음.

3) 상·중·하 집단은 평균±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음.

2) 도덕성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도덕성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하위집단 간의 차이는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3> 과 같다.

공감능력, 양심, 관용, 친절, 자제력, 존중심, 공정성은 모두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규칙적응은 모두 공감능력, 양심, 관용, 친절, 자제력, 존중심, 공정성에서 상, 중, 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덕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도덕성이 높은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3> 도덕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학교생활적응 도덕성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규칙적응		전체	
		M(SD)	S	M(SD)	S	M(SD)	S	M(SD)	S	M(SD)	S
공감능력	하(n=93)	12.80(2.59)	a	13.15(1.81)	a	13.09(2.11)	a	13.93(2.42)	a	52.97(6.62)	a
	중(n=266)	15.18(2.58)	b	14.59(2.07)	c	14.86(2.01)	b	16.33(2.20)	b	60.95(6.95)	b
	상(n=106)	17.78(2.10)	c	16.30(1.58)	c	16.38(1.67)	c	18.27(1.73)	c	68.74(5.11)	c
	F	101.07***		67.97***		69.85***		100.74***		145.51***	
양심	하(n=114)	12.72(2.62)	a	13.26(1.96)	a	13.23(2.22)	a	14.15(2.51)	a	53.36(7.23)	a
	중(n=237)	15.41(2.39)	b	14.66(2.03)	b	14.90(1.98)	b	16.26(2.09)	b	61.23(6.43)	b
	상(n=114)	17.64(2.25)	c	16.18(1.63)	c	16.36(1.54)	c	18.50(1.47)	c	68.68(5.03)	c
	F	119.03***		65.90***		73.93***		4125.10***		166.95***	
관용	하(n=91)	12.68(2.57)	a	12.93(2.03)	a	13.05(2.01)	a	13.86(2.51)	a	52.53(6.81)	a
	중(n=260)	15.22(2.50)	b	14.68(1.89)	b	14.81(1.99)	b	16.27(2.15)	b	60.98(6.66)	b
	상(n=114)	17.54(2.42)	c	16.11(1.85)	c	16.37(1.81)	c	18.31(1.64)	c	69.33(5.63)	c
	F	96.31***		70.30***		73.24***		111.87***		151.75***	
친절	하(n=104)	12.87(2.59)	a	13.01(1.96)	a	13.10(2.19)	a	13.92(2.28)	a	52.89(6.94)	a
	중(n=264)	15.42(2.61)	b	14.80(1.89)	b	14.99(1.93)	b	16.44(2.22)	b	61.66(6.71)	b
	상(n=97)	17.55(2.25)	c	16.19(1.88)	c	16.35(1.73)	c	18.43(1.45)	c	68.52(5.31)	c
	F	86.43***		70.70***		70.99***		117.21***		147.11***	
자제력	하(n=101)	12.91(2.66)	a	13.03(2.12)	a	13.14(2.20)	a	14.05(2.60)	a	53.13(7.26)	a
	중(n=252)	15.41(2.66)	b	14.71(1.91)	b	14.88(1.93)	b	16.27(2.14)	b	61.27(6.38)	b
	상(n=112)	17.18(2.36)	c	16.15(1.68)	c	16.33(1.80)	c	18.37(1.52)	c	68.03(5.30)	c
	F	72.61***		71.39***		70.66***		109.77***		135.45***	
존중심	하(n=112)	13.07(2.81)	a	13.06(2.04)	a	13.15(2.13)	a	13.80(2.50)	a	53.09(7.24)	a
	중(n=242)	15.31(2.53)	b	14.77(1.89)	b	14.90(1.90)	b	16.48(2.00)	b	61.47(6.37)	b
	상(n=111)	17.50(2.27)	c	16.15(1.74)	c	16.45(1.73)	c	18.40(1.41)	c	68.50(5.25)	c
	F	84.91***		74.70***		82.44***		146.81***		165.11***	
공정성	하(n=108)	12.76(2.62)	a	12.96(1.95)	a	13.08(2.15)	a	13.87(2.30)	a	52.68(6.83)	a
	중(n=246)	15.42(2.48)	b	14.76(1.90)	b	14.91(1.96)	b	16.41(2.14)	b	61.49(6.40)	b
	상(n=111)	17.49(2.96)	c	16.23(1.71)	c	16.44(1.54)	c	18.40(1.53)	c	68.55(5.26)	c
	F	99.96***		83.98***		84.49***		134.06***		177.31***	
전체	하(n=86)	12.55(2.63)	a	12.81(1.99)	a	12.87(2.16)	a	13.46(2.23)	a	51.59(6.84)	a
	중(n=289)	15.35(2.51)	b	14.70(1.89)	b	14.90(1.98)	b	16.46(2.10)	b	61.41(6.43)	b
	상(n=90)	17.76(2.96)	c	16.44(1.69)	c	16.57(1.45)	c	18.57(1.38)	c	69.33(4.90)	c
	F	95.83***		82.99***		81.44***		150.66***		178/22***	

1) *** p<.001

2) S는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 결과이며, 다른 문자끼리 유의한 의미가 있음.

3) 상·중·하 집단은 평균±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음.

6. 초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아존중감, 도덕성,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도덕성 및 학교생활적응,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4>에 제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자아존중감, 도덕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학년은 자아존중감과 도덕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에서는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교규칙적응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학교수업적응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는 자아존중감과 도덕성, 학교생활적응 하위변인 모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존중심과 경제수준 인지도의 상관관계($r=.2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수업적응($r=.23$), 자제력($r=.22$), 관용($r=.20$), 도덕성 전체($r=.20$), 양심($r=.18$), 친절($r=.16$), 공감능력($r=.15$), 교우관계적응($r=.15$), 교사관계적응($r=.15$), 학교규칙적응($r=.15$), 공정성($r=.13$), 학교수업적응의 상관관계($r=.12$) 순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도덕성,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먼저 자아존중감과 도덕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적응($r=.4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교규칙적응($r=.43$), 친절($r=.40$)과 도덕성 전체($r=.40$), 공감능력($r=.39$), 공정성($r=.38$), 관용($r=.38$), 교사관계적응($r=.37$), 교우관계적응($r=.36$), 자제력($r=.35$), 존중심($r=.34$), 양심($r=.34$) 순으로 나타났다.

도덕성의 하위변인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 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공감능력은 교사관계적응의 상관관계($r=.6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교규칙적응($r=.58$), 학교수업적응($r=.53$), 교우관계적응($r=.51$) 순으로 나타났다. 양심에서는 학교규칙적응의 상관관계($r=.6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사관계적응($r=.63$), 학교수업적응($r=.56$), 교우관계적응($r=.51$) 순으로 나타났다. 친절에서는 학교규칙적응의 상관관계($r=.62$)가 높게 가장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사관계적응($r=.60$), 학교수업적응($r=.55$), 교우관계적응($r=.54$) 순으로 나타났다. 자제력에서는 학교규칙적응의 상관관계($r=.65$)가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사관계적응($r=.55$), 교우관계적

응(r=.53), 학교수업적응(r=.51) 순으로 나타났다. 존중심에서는 학교규칙적응의 상관관계(r=.68)가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사관계적응(r=.58), 학교수업적응(r=.56), 교우관계적응(r=.53)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에서는 학교규칙적응의 상관관계(r=.63)가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사관계적응(r=.60), 학교수업적응(r=.57), 교우관계적응(r=.55) 순으로 나타났다. 도덕성 전체에서는 학교규칙적응의 상관관계(r=.69)가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사관계적응(r=.65), 학교수업적응(r=.59), 교우관계적응(r=.5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아존중감, 도덕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사회인구학적 적요인	1. 학년	1														
	2. 가족 수	-.03	1													
	3. 경제수준 인지도	-.12*	.15**	1												
<hr/>																
4 자아존중감																
<hr/>																
	5. 공감능력	-.04	.00	.15**	.39***	1										
	6. 양심	.00	-.01	.18**	.34***	.81***	1									
	7. 관용	-.06	.02	.20**	.38***	.80***	.84***	1								
도덕성	8. 친절	-.06	.00	.16**	.40***	.86***	.82***	.88***	1							
	9. 자제력	-.01	-.03	.22**	.35***	.72***	.81***	.81***	.79***	1						
	10. 존중심	-.07	-.02	.25**	.34***	.75***	.82***	.85***	.80***	.83***	1					
	11. 공정성	-.04	-.04	.13*	.38***	.83***	.85***	.82***	.85***	.79***	.82***	1				
	12. 도덕성 전체	-.04	-.01	.20***	.40***	.90***	.92***	.93***	.93***	.89***	.91***	.93***	1			
<hr/>																
학교생활적응	13. 교사관계적응	.07	-.06	.15**	.37***	.60***	.63***	.60***	.60***	.55***	.58***	.60***	.65***	1		
	14. 교우관계적응	-.02	-.01	.15**	.45***	.51***	.51***	.52***	.54***	.53***	.53***	.55***	.57***	.63***	1	
	15. 학교수업적응	-.12**	-.02	.23**	.36***	.53***	.56***	.54***	.55***	.51***	.56***	.57***	.59***	.63***	.55***	1
	16. 학교규칙적응	-.03	-.06	.15**	.43***	.58***	.65***	.64***	.62***	.65***	.68***	.63***	.69***	.59***	.52***	.62***

* p<.05 *** p<.001 **p <.001

7.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표 14>에 의하면, 도덕성의 하위변인 간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범위가 10을 넘으므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도덕성 전체는 도덕성 하위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회귀분석에는 도덕성 전체를 채택하여 실시하였다.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5> 와 같다.

교사관계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년, 가족 수,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이었으며 설명력은 45%였다. 도덕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아존중감, 학년, 가족 수 순이었다. 도덕성, 자아존중감, 학년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가족 수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도덕성 및 학년 높을수록, 가족 수가 적을수록 교사관계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도덕성과 자아존중감이었으며, 도덕성과 자아존중감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설명력은 38%였다. 도덕성과 자아존중감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도덕성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교우관계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업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년, 경제수준, 자아존중감, 도덕성이며, 설명력은 52%였다. 도덕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년, 경제수준 인지도, 자아존중감 순이었다. 도덕성과 자아존중감 및 경제수준 인지도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학년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도덕성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잘 산다고 생각할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수업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칙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도덕성과 자아존중감이었으며, 도덕성과 자아존중감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설명력은 42%였다. 도덕성과 자아존중감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도덕성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교우관계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 수, 경제수준 인지도, 자아존중감, 도덕성이었으며, 설명력은 62%였다. 도덕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아존중감, 가족 수, 경제수준 인지도 순이었다. 도덕성과 자아존중감 및 경제수준 인

지도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가족 수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도덕성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잘 산다고 생각할수록, 가족 수가 적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 학년은 교사관계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으면 교사관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 수는 교사관계적응, 학교규칙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가 많으면 교사와 학교생활전체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교사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학교규칙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 인지도가 높으면 학교규칙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할수록 학교규칙에 잘 적응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은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학교생활적응 전체변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이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데 좀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사회인구학적요인 및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독립변수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요인	성별	-.219	-.036	-.027	-.006	-.360	-.070	.269	.057	-.337	-.020
	학년	.403	.107**	-.001	.000	-.403	-.128***	-.091	-.031	-.093	-.009
	가족 수	-.271	-.089*	-.091	-.041	-.131	-.051	-.132	-.056	-.624	-.074*
	경제수준	.241	.059	.109	.037	.362	.106**	.139	.044	.851	.075*
	종교유무	.255	.042	.331	.075	.030	.006	.194	.041	.810	.048
자아존중감		.101	.109*	.179	.265***	.081	.104*	.167	.234***	.528	.203***
도덕성		.054	.578***	.030	.442***	.048	.617***	.037	.516***	.169	.648***
상수		2.13		4.23		5.66		3.51		15.53	
Adj - R ²		.45		.38		.52		.42		.62	
F		39.56***		30.40***		52.20***		34.79***		76.45***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및 도덕성과 학교생활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이나 학교상담사업에서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과 도덕성, 학교생활적응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도덕성은 양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은 하위 변인 중 학교규칙적응과 교사관계적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및 도덕성과 학교생활적응 평균점수가 대체로 중간 값보다 높게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초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아버지의 연령이었고, 아버지의 연령이 40대인 집단이 30대 이하인 집단과 50대 이상인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40대인 아버지는 30대 이하보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으며, 50대 이상보다 개방적인 사고를 가져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 성취감이 높기 때문에 40대인 아버지를 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셋째, 초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도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성별, 경제수준 인지도, 종교유무, 아버지의 연령이었다. 성별은 공감능력, 양심, 관용, 친절, 자제력, 존중심, 공정성 등 도덕성 하위요인 모두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공감능력, 양심, 관용, 친절, 자제력, 존중심, 공정성 등에 모두 유의미한 차

이를 보여주었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매우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더 높았다. 종교유무는 공감능력, 양심, 관용, 친절, 공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도덕성이 높았다. 아버지의 연령은 공감능력, 양심, 공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양심과 공정성은 40대 집단이 50대 이상 집단보다 높았다.

넷째, 초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성별, 학년, 경제수준 인지도, 종교유무, 가족 수, 부모 유무, 아버지의 연령, 어머니의 연령이었다. 성별은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 모두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교사관계적응과 학교규칙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적응에서는 5학년과 4학년 및 6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5학년이 4학년 및 6학년보다 높았다. 학교규칙적응에서는 4학년 및 5학년과 6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4학년 및 5학년이 6학년보다 높았다. 경제수준 인지도는 하위요인 모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대부분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매우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더 높았다. 종교유무에서는 하위요인 모두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는 교우관계적응과 학교수업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교우관계적응에서 4인 집단이 3인 이하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 유무는 학교규칙적응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집단이 한부모, 조부모와 살고 있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연령은 하위요인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적응과 학교규칙적응에서 40대 집단이 50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자아존중감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도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도 알기에 자아존중감이 도덕성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은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사회인구학적요인과 자아존중감, 도덕성,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인구학적요인에서는 학년이 경제수준 인지도와 학교수업적응과의 관계에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수준 인지도는 가족 수, 도덕성, 학교생활적응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및 도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사관계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년, 가족 수, 자아존중감, 도덕성이었고, 그 중 도덕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자아존중감, 학년, 가족 수 순이었다. 도덕성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가족 수가 적을수록 교사관계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적응과 학교규칙적응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도덕성과 자아존중감이며, 도덕성과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다. 도덕성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교우관계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업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년, 경제수준 인지도, 자아존중감, 도덕성이고, 그 중 도덕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년, 경제수준 인지도, 자아존중감 순이었다. 도덕성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잘 산다고 생각할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수업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에 있어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수업에 집중하고 학교 내의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의 활용과 앞으로 후속 되어야 할 연구 과제를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초등학생 4, 5, 6학년 남녀 46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에 대한 조사 자료를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질문지에만 의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환경적 상황, 심리적 상태, 질의에 대한 이해도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에 있어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보고식 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으로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으로 한정하였으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정의적 변인들에 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EBS 제작팀(2009). **아이의 사생활**. 지식채널.
- 강영만(1995). 도덕성 형성 과정 및 영향을 미치는 변이 연구. 한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려옥(2005).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2003). **현대이상심리학**. 학지사.
- 권양순(2008). 영적 건강과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백색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양순, 송정아(2010). 영적 건강과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53-60.
- 권주임(2013). 아동의 도덕성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와 또래관계의 차이.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연, 하영의(1998). 사회화 요인들이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친사회적 및 규칙위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8, 69-93.
- 김상윤(2006). **한국인의 도덕판단발달 연구**. 서울: 청목출판사.
- 김아영(2002). 학업동기 척도 표준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15(1), 157-184.
- 김용래(1993). 학업성적에 대한 귀인변인의 영향력 분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선(2013).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도덕지능 관계 :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10-12.
- 김정은(2011). 초등학생의 도덕지능, 친사회적 행동, 정서지능 간의 관계.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7, 10-14.
- 김지희(2011).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도덕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5, 16-17.
- 김현준(2013).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도덕교육연구회(1993). **도덕교육론**. 서울: 보경문화사. 33.
- 민영순(1995). **교육심리학**. 문음사.
- 박서연(2012). 중학생의 완벽주의성향과 특성불안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옥자(2012). 초등학생 휴대폰 사용 실태, 또래 관계, 충동성,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연구. 대진대학교 교육대학. 석사학위논문.
- 박원경(2006). 학습장애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의 불안, 우울정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태엽(1988). 아동의 도덕성 판단에 미치는 또래집단, 사회적이익, 교사반응의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1995).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 설경숙(2009). 초등학생의 교사에 대한 신뢰와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용래(2009). 종교 유무에 따른 도덕판단과 도덕행동의 비교 : 기독교인 여중생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윤자(2005).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학교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수정(2003). 중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정도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갑례(2002). 부모 양육 태도와 성별에 따른 도덕성 발달의 차이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돈희(1997). **도덕교과학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돈희. 권균 위음(2002). **도덕성 회복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이미라(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2005).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 이차선(2000).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제주도 청소년을 중심으로-. **백록논총**. 2, 109-138.
- 임지현(2009).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 정수연(2010). 초등 도덕 교육에서 도덕지능의 함의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540-554.
- 정종진(2009). 초등학생용 도덕지능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초등교육학회**. <초등교육연구> 22권 1호, 249-269.
- 정지아(2010).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도덕성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발그니(2007). 청소년의 종교성과 도덕성 : 배경변인별 차이와 관계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아(2008). 초등학교 고학년용 도덕지능검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원성(1996).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아동이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파(2012). 초등학생의 도덕성 발달을 위한 자존감 함양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영이(2006). 중학생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자(2006).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 및 창의적 성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순(2014). 초등 고학년의 자아존중감, 자기결정성동기,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태혁(2011). 중학생의 도덕성 발달과 학습태도 및 사회성의 관계 연구:도덕 판단력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심리학회 편(2000).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학지사.
- 한양희(2000). 학교의 심리적 환경이 청소년의 도덕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중혜(1997). 교사 및 또래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아동의 자아 존중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180.

홍성훈(2004),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의 발달에 관한 연구 -EQ·자아존중감·도덕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196-197.

황동한(2011). 하나님 이미지가 자아존중감과 신앙성숙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백색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보영(2009).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Bierman, K. L.(1994). School Adjustment In R.J. Corsini(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John Wiley & Sons.

Borba(2001). *Building moral intelligence: The Seven essential virtues that teach kids to do the right thing*. Jessey-Bass.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 pp. 19-34.

Coopersmith, S.(1968). Studies in Self-Esteem. *Personality and Behavior Disorder*. 2, 218-224.

Fink, M.(1962). Self Concept as it relates to Academic under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3.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erk: Basic Books.

Jean Piaget(2000). 송명자, 류웅달, 김상운 옮김. **아동의 도덕판단**. 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Kohlberg, L, A.(1976). Moral Stages and moralization: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in T. Likona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co: Rand McNally.

- 콜버그, 레빈, 휴어(2000). 문용린 역.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서울: 아카넷.
- Ladd, G. W., Kochenderg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Rosenberg, F.(1989).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141-156.
- Shaffer, D, R. (1999). *Developmental psychology: Chailhood and adolescence* (5th ed.). California: Brooks/cole.

Abstract

**Influence of self-esteem & mora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 adoption to school life**

Park, Ji Eun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Kim, Jeong 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elf-esteem & mora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 adoption to school life and to assist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have better adoption to school life. For the purpose of study, the self-esteem, morality and adoption to school life have been measured with the subject of 465 middle school students among 5 middle schools in Jeju area. One-way analysis of variance & -test have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self-esteem, morality and adoption to school life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factor, and the difference between sub groups has been analyzed with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morality and adoption to school lif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correlation analysis has been conducted, an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elf-esteem & mora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 adoption to school life.

The major analysis result of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t first, the self-estee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s shown relatively high, and the conscience has shown the highest in the morality. The adoption to school life has shown relatively high in sub factors such as the adoption to school regulation & relationship with teacher.

At second, the socio-demographic factor which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elf-esteem has been the age of father, and a significant difference has been appeared between a group with the age of 30s & 40s.

At third,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which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morality have been a gender, economical standard, religion, and age of father. In case of gender factor, female students have shown higher in all sub factors of morality such as empathy ability, conscience, generosity, kindness, self-control, respect, and fairness than male students. The economic standard has shown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mpathy ability, conscience, generosity, kindness, self-control, respect, and fairness, and the group which considers themselves as rich has shown higher morality than the group which considers themselves as normal. The religion has shown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mpathy ability, conscience, generosity, kindness, and fairness, and the group with a religion has shown higher morality than the group without a religion. The age of father has shown a significant influence on empathy ability, conscience, and fairness, and the conscience & fairness have been higher in a group of age of 40s than 50s based on the result of multiple range test.

At fourth,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which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doption to school life have been a gender, grade, economic standard, religion, number of family member, age of father, and age of mother. In case of gender factor, female students have shown higher in all sub factors of adoption to school life than male students. The grade has been appeared to b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doption to school regulation & relationship with teacher. In the adoption to relationship with teacher, the 5th grade has shown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4th & 6th grade, and the 5th grade has shown a

higher factor than the 4th & 6th grade. In the adoption to school regulation, the 6th grade has shown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4th & 5th grade, and the 4th & 5th grade has shown a higher factor than the 6th grade. The economic standard has shown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sub factors, and the group which considers themselves as rich has shown higher than the group which considers themselves as normal. In the religion, all sub factors have been higher in the group with a religion than the group without a religion. The number of family member has shown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doption to friend relationship & school class, and 4 member family has a higher in the adoption to friend relationship than a family with less than 3 member of family. The age of father has appeare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all sub factors. A group with the age of 40s has shown higher in the adoption to school regulation & relationship with teacher than a group with the age of 50s.

At fifth, it has been appeared that the higher self-esteem may lead to the higher morality, and the higher self-esteem & morality may lead to the better adoption to school life.

At sixth, it has been a all positive correlation among the self-esteem, morality and adoption to school life.

Finally, the self-esteem & conscience, grade, and number of family member have been a variable which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doption to relationship with teacher, and the conscience has affected the most, and the self-esteem and self-control have affected an significant influence in order as a variable on the adoption to friend relationship & school class. A gender, grade, economic standard, self-esteem, conscience, and respect have been a variable which affect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doption to school regulation, and the respect has affected the most.

In conclusion, the self-esteem may affect a positi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doption to school life, and the morality may affect a positive significant

influence on conscience, self-control, and respect. In order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ir school life to have an harmonized interpersonal relations, to concentrate on the class, and to comply the regulation of school, the development & implementation of education program to increase the self-esteem & mora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hall be necessary.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답을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응답은 연구를 하는데 있어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한 내용은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께서 아실 수 없으며 연구 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2014년 10월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연구자 박 지은 지도교수 김 정숙

**I. 자아존중감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난에 ✓표를 해주세요.**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나는 내 자신이 적어도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 나는 많은 장점을 가졌다고 느낀다.	1	2	3	4
◦ 모든 면에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낀다.	1	2	3	4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많지 않다고 느낀다.	1	2	3	4
◦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좋은) 태도를 갖고 있다.	1	2	3	4
◦ 전반적으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 나는 나 스스로를 조금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한다.	1	2	3	4
◦ 나는 무기력해 지는 것을 때때로 느끼곤 한다.	1	2	3	4
◦ 가끔 나는 내가 전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Ⅱ. 도덕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난에

✓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지 않다	거 의 지 않다	보 통 이 다	거 의 다	매 우 다
◦ 남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즐거워한다.	1	2	3	4	5
◦ 잘못된 행동을 찾아내고 그것이 왜 나쁜지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한다.	1	2	3	4	5
◦ 괴롭힘을 당하거나 낮설어하는 사람을 돕고 위로해준다.	1	2	3	4	5
◦ 서 있는 줄에 끼어들거나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가로막지 않는다.	1	2	3	4	5
◦ 나이, 종교, 문화,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손하게 대한다.	1	2	3	4	5
◦ 부당하게 대접받는 사람을 돕는 것을 즐거워한다.	1	2	3	4	5
◦ 누군가 고통스러워 할 경우, 같이 마음 아파한다.	1	2	3	4	5
◦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을 안다.	1	2	3	4	5
◦ 사람을 차별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1	2	3	4	5
◦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절하지 않고 친절하게 도와준다.	1	2	3	4	5
◦ 어른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충동과 욕구를 조절할 수 있다.	1	2	3	4	5
◦ 공손한 말투를 사용하고 건방진 대답이나 주제 넘는 말대꾸를 하지 않는다.	1	2	3	4	5
◦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같이 타협한다.	1	2	3	4	5
◦ 남이 슬퍼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안쓰럽게 여긴다.	1	2	3	4	5
◦ 잘못했을 때는 비난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1	2	3	4	5
◦ 인종과 문화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개방적이다.	1	2	3	4	5
◦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위협하며 비웃지 않는다.	1	2	3	4	5
◦ 흥분하고 실망했거나 화가 났을 때에도 금방 차분해진다.	1	2	3	4	5
◦ 남의 방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하는 것처럼 남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1	2	3	4	5
◦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	1	2	3	4	5
◦ 누군가 우는 것을 보면 괴로워한다.	1	2	3	4	5
◦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거 의 그 렇 지 않다	보 통 이 다	거 의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 외모·나이·성별 등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내가 먼저 다가가 도와준다.	1	2	3	4	5
◦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밀어버리는 물리적인 공격은 하지 않는다.	1	2	3	4	5
◦ 남에 대해 속덕거리거나 안 좋게 말하는 것을 삼가 한다.	1	2	3	4	5
◦ 문제를 평화롭고 정당하게 해결하려고 애쓴다.	1	2	3	4	5
◦ 누군가 괴로워하고 있으면 다가가 위로한다.	1	2	3	4	5
◦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옳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 자신과 다르다고 사람들을 놀리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1	2	3	4	5
◦ 도움이 필요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관심을 표한다.	1	2	3	4	5
◦ 잘 참고 기다린다.	1	2	3	4	5
◦ 몸가짐이 아주 바르고 예의바른 말들을 사용한다.	1	2	3	4	5
◦ 다른 사람을 평등하고 정당하게 해결하려고 애쓴다.	1	2	3	4	5
◦ 다른 사람의 마음과 기분을 이해한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다.	1	2	3	4	5
◦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에 옮긴다.	1	2	3	4	5
◦ 자신과 다른 경험을 했다고 그를 배척하지 않는다.	1	2	3	4	5
◦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즐긴다.	1	2	3	4	5
◦ 화가 나거나 좌절했을 때에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통 상태로 회복된다.	1	2	3	4	5
◦ 욕설을 삼가고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1	2	3	4	5
◦ 친구들이 싸울 때 양쪽 얘기를 모두 들어본다.	1	2	3	4	5
◦ 상대방의 몸짓이나 얼굴 표정을 통해 그 사람의 기분을 쉽게 알아차린다.	1	2	3	4	5
◦ 잘못했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죄의식을 느낀다.	1	2	3	4	5
◦ 괴롭힘을 당하거나 놀림을 받는 사람 편에 선다.	1	2	3	4	5
◦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기운을 북돋아주는 격려의 말을 한다.	1	2	3	4	5
◦ 화가 나거나 마음이 심란할 때는 잠시 감정을 달랜다.	1	2	3	4	5
◦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는다.	1	2	3	4	5
◦ 서로가 하고 싶은 일은 차례를 정해 교대로 한다.	1	2	3	4	5

Ⅲ.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난에 ✓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나는 선생님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1	2	3	4
◦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	1	2	3	4
◦ 나는 학교생활 중 수업시간이 가장 즐겁다.	1	2	3	4
◦ 나는 당번활동을 열심히 한다.	1	2	3	4
◦ 선생님을 길에서 보면 반가워서 달려가 인사를 한다.	1	2	3	4
◦ 나는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1	2	3	4
◦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1	2	3	4
◦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많다.	1	2	3	4
◦ 선생님들은 나를 귀엽게 여기신다.	1	2	3	4
◦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흥미 있는 것이 많다.	1	2	3	4
◦ 나는 학교의 시설물을 조심해서 사용한다.	1	2	3	4
◦ 학급에서 친구들과 사이에 인기가 있다.	1	2	3	4
◦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	1	2	3	4
◦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질서를 잘 지킨다.	1	2	3	4
◦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 줄 친구가 많다.	1	2	3	4
◦ 나와 선생님과의 관계는 원만하다.	1	2	3	4
◦ 나는 수업시간에 딴 생각을 많이 한다.	1	2	3	4
◦ 나는 등교시간을 잘 지킨다.	1	2	3	4
◦ 나는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1	2	3	4

IV. 다음은 문항에 대한 해당번호에 ✓표를 해주세요.

1. 성별은? ①남자 ②여자
2. 학년은 ? ① 4학년 ② 5학년 ③ 6학년
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 자매
 ④ 할아버지 ⑤ 할머니 ⑥ 기타 ()
4. 가족 구성원 수는? ()명
5. 부모님의 교육정도는?

교육정도	아버지	어머니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6. 부모님의 직업은?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7. 부모님의 나이는?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아버지					
어머니					

8. 내가 생각하는 우리 집의 경제수준은?
 ① 매우 잘 사는 편이다 ② 잘 사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어려운 편이다 ⑤ 매우 어려운 편이다.

9. 나의 종교는?
 ① 기독교(개신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없음 ⑤ 기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